

1 주 소그룹 모임본문: 여호수아 1 장 1-9 절

제 목: 강하고 담대하라

찬송가: 허락하신 새 땅에, 새 347 장(통 382 장)
십자가 군병 되어서, 새 353 장(통 391 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새 357 장(통 397 장)

여는 질문: 11 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을까요?

올해도 여전히 팬데믹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순간은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의 달을 맞아 감사의 고백을 해 보십시오. 감사는 기쁨의 시작이고 원망은 슬픔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감사로 올 한해를 잘 마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쁨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이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40 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후,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자리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첫번째 임무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거쳐 모세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던 여호수아였지만, 사실 그가 가진 두려움은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만 세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특히 세번째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과의 전쟁에 임하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입니다.

지금 이 세상과의 전쟁을 앞 두고 있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하고, 가나안 땅은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이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속으로

1.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3-4 절)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만, 이를 근거로 무리한 땅밟기를 하는 것은 말씀이 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다? (7-9 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보다 먼저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의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공평과 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있을거라 하셨습니다.

삶 속으로

1. 여러분은 가정, 교회, 직장 등에서 어떤 영적 리더쉽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여러 직책을 가지고 사역하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보더라도 진실된 그리스도인입니까?
2. 지금 우리들이 점령할 가나안은 누구(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묵도하다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장벽은 무엇입니까?

암송구절: 여호수아 1 장 8 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녀와의 나눔

당신은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현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다그치지 말고 최대한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주 소그룹 모임본문: 여호수아 7 장 22-27, 7 장 22-26 절

제 목: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찬송가:

여는 질문: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할 듯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습니까?

본문 이해

우리는 믿음으로 가던 이스라엘을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7 일동안 돌아서 무너뜨린 것, 이는 믿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죄악이 공동체에 들어오자, 여호수아 까지도 영적으로 흔들립니다. 아이라는 곳은 여리고에 비하면 작고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그 곳을 정탐한 이들은 걱정할 것 없다며 2-3 천명만 보내도 승리할 거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전쟁만 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듣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정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싸울 용기와 의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여호수아는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궤 앞에 엎드려 한탄하며 기도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9)

이 때 하나님은 기도하던 여호수아를 깨우십니다. “네 안에 있는 악을 먼저 제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답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이제 그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물건을 탐내어 몰래 취하여 도적하고 숨기고 있다고 하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기도를 아무리 한다 한들, 그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간의 죄를 문제 삼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는 그만 망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딸들을 포함한 그의 모든 식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소유한 짐승들마저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패해 이스라엘 군인 36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제하여야 할 악을 제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를 비롯해 기도하던 이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음을 알게 하였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 바뀌지 않으면, 죄악을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안에 거할 수는 있어도, 약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제할 것을 제하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길입니다.

말씀속으로

1. 이스라엘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12 절)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전략의 부족이 아니라,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분명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공로”에 대해 그 공로를 가로채고 있는 또는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2. 아이성 싸움에서 패한 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평을 하였습니까? (7 절)

여호수아의 불평은, 백성들의 불평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눈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일 때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간들의 완악한 모습인거죠.

삶 속으로

1.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시작할 때 나뉘었던 죄의 문제중에, 이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일상의 사소한 것도 큰 은혜의 나눔일 수 있습니다.

2. 지금 우리 공동체(가정, 교회, 나라)안에 제거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영적인 눈으로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암송구절: 여호수아 7 장 13 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자녀와의 나눔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잘못을 부모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던가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오래전 저의 아이는 초코렛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다가 걸린적이 있었죠. 그런데 끝까지 안 먹은 척 하는 아이의 입가에는 사실 초코렛이 묻어있었습니다. 그 때 아이에게 말해줬던 것이 기억나네요. 하나님은 내가 숨기려고 해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있다고 말이죠.

3 주 소그룹 모임본문: 여호수아 14 장 6-15 절

제 목: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새 545 장(통 344 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새 546 장(통 399 장)

내 주여 뜻대로, 새 549 장(통 431 장)

여는 질문: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의 상황과 모습은 많이 다를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눈을 돌렸는지에 대해 나누다보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살펴볼 수 있을겁니다.

본문 이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 의해 분배된 요단 서편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서편 땅들은 이미 동편 땅을 분배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아홉지파 반에게 분배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 나눌 때에 유다지파가 첫번째 선택권을 갖습니다.

이 때 유다지파를 이끌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다름아닌 45 년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갈렙>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85 세, 나이로 보나 공적으로 보나 그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명한 땅은 너무나 의외의 땅 <헤르본>입니다.

이 헤르본의 옛 이름은 '기랴트 아르바'로 삼손도 어찌하기 어렵다던 기골이 장대하고 강인한 아낙자손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러니 이 헤브론을 분배 받는 지파는 분명 그들과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는 왜 첫번째 선택권이 있음에도 남들이 가장 싫어한 곳을 선택했을까요?

갈렙이 그 무서운 아낙 자손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갈렙 역시 남들과 똑같이 상황과 현실을 보았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떤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45 년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믿음의 눈으로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렙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갓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민 14:24)

오늘 갈렙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

수 14:10>라고 고백합니다. 즉, 갈렙은 오랜 시간동안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분명 잘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택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이름은 기랴트 아르바라 ...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14-15 절)

말씀속으로

1. 요단 서편의 땅 분배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1 절)

여호수아와 대제사장인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주축이 되어 제비 뽑기를 통해 땅 분배가 이루어졌죠. 이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 45 년전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9 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밭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삶 속으로

1.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무언가 선택이 필요했던 순간 고민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 때 그 선택을 하게 했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나눠보세요. 그리고 더불어 그 순간을 신앙적인 모습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2. 당신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갈렙은 무려 45 년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상의 시간이 주어졌어도 그 믿음은 변치 않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는 약속을 나눠보세요.

암송구절: 여호수아 14 장 12 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녀와의 나눔

1.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껴진 적이 있나요?

이 질문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대답하기 어려워하면,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입니다.

4 주 소그룹 모임본문: 요엘 1 장 8-20 절

제 목: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

찬송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새 251 장(통 137 장)

내 주의 보혈은, 새 254 장(통 186 장)

너희 죄 흉악하나, 새 255 장(통 187 장)

여는 질문: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팬데믹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들 하세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답이 아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마음을 열고 나눠보세요.

본문 이해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요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성경만해도 요엘이라는 사람이 열두명이나 등장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요엘서의 저자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정확히 언제 활동한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정치적인 암울한 상황과 맞물려 있던 것 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도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호와와 날”,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인데, 그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환난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어진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가정, 사업, 자녀, 환경에서 오는 위기를 떠올리면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위기는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에 대한 목마름이 무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요엘서 9 절에 보니 “소제와 번제가 여호와와 성전에서 끊어졌고” 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단 한 번도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배가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메뚜기떼가 모든 것을 먹어 치워 제단에 드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뚜기 떼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뚜기떼를 보내고, 요엘을 불러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영적침체>를 끊으라는 신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하라.”

사랑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앞에 큰 파도가 옵니까?

영적으로 깨어 나셔서, 그 파도를 타십시오. 그 파도는 여러분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라고 오는 파도가 아닙니다. 그 파도를 타고 환호성을 지르며 나오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나야 합니다.

말씀속으로

1. 징벌적 재앙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14 절)

요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함인거죠.

2. 요엘은 이 거대한 메뚜기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15 절)

요엘은 이 날을 도래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일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삶 속으로

1. 당신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동안 당신은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습니까?
지금은 세상도 위기의 시대라고 하고, 교단도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각자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2. 당신의 인생에서 예배가 멈췄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 때 당신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팬데믹 중에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아픔은 예배가 멈춰졌던 것입니다. 온라인이라는 대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 오히려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다는군요. 예배가 빠진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송구절: 요엘 1 장 3 절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려라.”

자녀와의 나눔

1. 여러분은 매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나요? 만약 교회를 빠진 적이 있다면 왜 빠지게 되었나요?
어릴적의 신앙생활은 먼 미래의 신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인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목사인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군요. 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신앙을 잃어버려 너무나 슬프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합니다. 그 친구가 고 3 때,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교회를 못 가게 해서, 그 이후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